

'수필의 대부' 담양 출신 박연구 문학 기린다

7일 담빛예술창고 조각공원에서 문학비 제작식

수필 위상 제고에 헌신, 한국수필문학진흥회장 역임

'바보네 가게' 등 남겨...2012년 매일 수필문학상 제정돼

수필은 있음직한 허구의 이야기를 그리
는 소설이나 감성을 리드미컬하게 형상화
하는 시와 달리 삶에 바탕을 둔 진실을 담
아내는 장르다. 흔히 에세이라고 명명하는
것은 소재가 대부분 사람과 자연, 일상이
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.

수필은 신앙으로 삼고 살았던 이가 있었
다. 그를 가리켜 '수필의 대부', '수필의 순
교자'라고 부른다. '바보네 가게'와 '외가
만들기'의 저자 매일(梅翼) 박연구.
(1934~2003·사진) 담양 수북 출신인 그는
40여 년간 문단활동 기간 문학사에 빛
나는 작품을 창작했다.

매일은 수필창작집 7권, 편저 4권, 발췌
문고 8권을 남겼다. 특히 그는 수필이 본격
적인 문학 장르로 우뚝 설 수 있게 위상을
확립하고, 수필문단이 형성될 수 있도록
헌신했다.

매일 박연구 문학비 제작식이 오는 7일
오후 3시 담양 담빛예술창고 조각공원 일
원에서 개최돼 눈길을 끈다.

매일 박연구 수필문학비건립추진위원회
가 주관하고 담양군과 담양문화원이 주최
하는 제작식은 문학상 있는 작품으로 필명
을 날렸던 매일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수필
문학의 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
다.

담양 빈농의 6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매
일은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의 작가였다. 선
천적으로 병약했지만 자원에 군복무를 마
칠 만큼 강단이 있었다. 일찍 어머니를 여
윈 중에도 아버지를 모시고 5명의 동생들
을 보살폈다. 매일은 63년 월간 '신세계' 신인

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왔으며 이후
1970년 수필 최초 동인지 '현대수필' 주간
을 역임했다. '수필문학'·'수필공원' 주간,
'에세이문학' 발행인, 한국수필문학진흥회
회장을 역임했다. 현재 그의 호를 딴 매일
수필문학상이 운영되고 있다.

담빛예술창고 조각공원에 세워진 전체
적인 비문의 형상은 책의 형상을 띠고 있
다. 조형물 디자인은 이종희 조각가가 맡
았다. 오른쪽에는 '고향 점경(點景)'에서
가 새겨져 있으며 왼쪽에는 부조로 새긴
박연구의 얼굴이 자리한다.

"문인화(畵)에서 오래 대나무가 중요한
소재로 등장한다. 곧고 곧은 성품의 기질을
표상하고 있거니와 대나무가 그려진 화
폭 앞에 서면 어느덧 고향 마을의 대숲에서
이는 바람소리를 듣는다. 내가 태어나
서 자라고 초등학교를 다니며 동심을 살피
우던 고장이 바로 마을마다 대숲에 에워싸
인 담양인 것이다."

생전의 매일의 고향에 대한 애뜻함과 사
랑이 어땠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. 그의
수필에는 남도의 서정과 기락, 아름다움이
보석처럼 박혀 있다. 물 흐르듯 유연한 문
체와 깊은 사유, 고매한 문장은 기품 있는
대나무를 보는 듯한 작각을 준다.

왼쪽 페이지에 새겨진 글귀도 "나는 정
작 봄을 맞이하면 봄알이를 심하게 하는
편이다"로 유명한 '봄알이를 할지언정'이
새겨져 있다. 하단에는 그의 문학과 관련
된 이력이 집약적으로 기록돼 있다.

당초 제작비 추진은 서울과 담양에서 위
원회가 꾸려져 시작했다. 지난해 4월 '매



담양 담빛예술창고 조각공원에 세워진 매일 박연구 문학비. (담양군 제공)

원문학상운영위, 매
원문학비건립추진
위'(서울·대포 양병
석)와 담양 문학비
건립추진위(대표 박
용훈)가 결성돼 각
각 기금 500만원씩
을 마련했다. 이와
연계해 (사)한국수필문학진흥회 운영소
회장과 매일수필문학상 운영위원회 조한
숙 회장은 담양군 작고문인선양사업 대
상자로 매일을 추천하는 추천 이의서를 제출
했다.



"그는 수필을 '情의美善'이라 정의하고
정감이 넘치는 수필을 그 누구보다 더 많
이 창작하여 독자의 정서 순화에 큰 역
을 하였습니다. '읽기 시작하면 정이 온
기를 느껴 두고두고 음미하고 싶은 글들이
다'(종락)라는 평이 평자들의 거의 공통된
평입니다. 이런 분이 귀 고을에서 배출되
었다는 것은 귀 고을의 영광이 아닐 수 없
습니다."

이에 따라 담양군(군수 최형식)에서는
지난해 4월 역사인물 현장사업 추진 및 지
원 조례를 제정, 문학비 건립 근거를 마련
했다. 이후 추진위와 함께 역사성과 문학
성을 기리는 장소 선정에 위해 조사를 실
시했으며 올 2월에는 매일의 대표 작품 가
운데 '문장' 또는 '글귀'를 문학비문 초안
으로 선정했다.

매일과 광주 동문인 문순태 소설가는
"박연구 수필가는 담양, 아니 남도가 배출
한 위대한 문학가다. 사실 문학적 업적과
작품성에 비해 많이 조명되지 않았지만 이
번 문학비 제막을 계기로 작품이 널리 알
리고 남도의 수필 문학이 더 풍성해졌으면
하는 바람"이라고 밝혔다.

한편 제작식은 2시50분부터 식전공연
(대금, 해금 등 퓨전국악 연주), 연시 낭
송, 성악이 펼쳐진다. 제막 퍼포먼스와
경과 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다.

/*박성천 기자 skypark@kwangju.co.kr



박진현의 문화카페

초등학교 시절, 같은 반 친구의 집에
놀러갔다. '문화적 충격'을 받은 적이
있다. 당시 공무원 아파트로 불렸던 친
구의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내가 살
던 단독주택과는 너무나 달랐다. 우선
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이 마당 구석이
아닌 거실 한쪽에 '버젓이' 자리하고
있는 게 신기했다. 그뿐인가. 주방 싱
크대나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틀면 따
뜻한 물이 팔팔 쏟아져 나왔다. 매일 아
침 물을 데우지 않아도 욕실에서 편하
게 온수로 머리를 감는다는 친구가 그
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. 집에 도착하
자마자 엄마한테 아파트 이사까지
고 졸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.
1971년에 발표된 고 최인호 작가의

'성냥갑 디자인'을 하고 있다는 점이
다. 주요 공공 건축물이나 도시경관 역
시 '무채색'이 대부분이다. 몇년 전 도
시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며 광주의 관
문인 광천동 터미널 앞에 건립된 초고
층 주상복합건물이 대표적인 예로 꼽
힌다. 광주의 정체성과 문화도시의 이
미지를 품고 있는 건축물은 극히 드물
다.
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50여
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주 막을
내렸다. 지난 2005년 창설된 디자인비
엔날레는 도시디자인 개선과 디자인
산업 부흥을 기치로 2년에 한번씩 수
업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메
가 프로젝트다.

광주는 왜 디자인비엔날레를 하는가

'타인의 방'은 당시 주거공간으로 붐이
일기 시작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작
품이다.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인간 소
외의 문제를 특유의 감성으로 형상화
한 소설인데, 아파트의 호시 격인 여의
도 시범아파트를 연상케 한다. 그도 그
렇듯이 1971년은 그 시절 기준으로 초
고층 아파트였던 12~13층인 여의도 시
범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중산층의 신
주거양식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됐기
때문이다.

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
말이 무색하게 광주의 도시풍경은 별
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. 오히려 무
분별한 건축 허가와 행정으로 공장에
서 찍어낸 듯한 건축물이 곳곳에 들어
서고 있다. 최근 디자인비엔날레 부
행사로 열린 '2019 국제도시디자인 포
럼'은 이런 도시건축의 민낯을 그대로
드러낸 자리였다. 이날 외국에서 참가
한 디자인 전문가들은 "체류기간 둘러본
광주의 아파트와 공공건축물 어디에서
도 디자인 비엔날레의 개최지다운 면
모를 느끼기 어려웠다"고 꼬집었다.

40여 년이 지난 지금, 광주 시민들에
게 아파트는 일상을 넘어 '피로'와 '공
포'의 대상으로 다가온 듯하다. 실제로
지난해 말 현재 30층 이상 고층건축물
이 26곳에 170개동이 있으며, 이 가운
데 아파트가 22곳 160개동에 달한다.
특히 현재 재개발·재건축 등을 통해 건
립중이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상
당수가 30층 이상이라고 하니 '아파트
공화국'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.

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디자인은
이제 도시의 경쟁력이 됐다. 아름다운
건축물은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시민들
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공재이다. 그
렇다면 '광주는 왜 디자인 비엔날레를
개최하는가'. 정녕 디자인비엔날레의
'효과'는 없는가. 지금이라도 초심으로
돌아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다.
문제는 이들 고층 아파트들이 모두
〈제작국장·문화선임기자〉

GSO TEENS 심포니 완주하기 '멘델스존 이탈리아'

광주시향, 8일 문예회관



광주시향교향악단(이하 광주시향)이
'GSO TEENS, 심포니 완주하기 : 멘델
스존의 이탈리아'를 연다. 8일 오후 7시
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.

GSO TEENS는 청소년들의 클래식 감
상을 위해 광주시향이 직접 연구, 제작하
는 교육형 콘서트다.
'심포니 완주하기' 시리즈는 클래식 음
악사를 차례로 조망했던 '클래식이 정말
좋아요!' 시리즈에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
공연이다. 다양한 스토리 접목, 타 장르와
의 융합, 관객 참여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
들이 교향곡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
도록 안내한다.
/전은재 기자 ej6621@kwangju.co.kr

127번째 '광주전남 우리가곡 부르기'

8일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



관객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가곡을
부르는 공연 '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'
127번째 무대가 8일 오후 7시 광주예총회
관 C동 방울소리공연장에서 펼쳐진다.

이달의 초청 음악가는 '애모', '아름다운
동행' 등을 작곡한 작곡가 황덕식(사진)이
다. 이날은 배우는 노래로 이병애의 시에
황씨가 곡을 붙인 '세월의 샘'을 무대에 올
리고, '애모', '호수가에서', '강가에서' 등
황씨의 곡을 함께 부르는 시간이 마련된
다. 회원 참여 연주로는 가'가을의 노래'
(김영미), '그리워서 피는 꽃'(최미영),
'그대 그리움'(나인희), '보고싶은 얼굴'
(이경민) 등을 만날 수 있다.
/전은재 기자 ej6621@

광주문화재단, 비상임 임원 13명 공개모집

광주문화재단(대표이사 김운기)은 오
래부터 문화재단 정관과 임원
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
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가 이뤄
질 예정이다.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11
일부터 15일까지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
접수하면 된다. 한편 제4기 이사진 임기
는 오는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26
일까지며 연임이 가능하다.
/박성천 기자 skypark@kwangju.co.kr

광주문화재단(대표이사 김운기)은 오
래부터 문화재단 정관과 임원
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
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가 이뤄
질 예정이다.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11
일부터 15일까지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
접수하면 된다. 한편 제4기 이사진 임기
는 오는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26
일까지며 연임이 가능하다.
/박성천 기자 skypark@kwangju.co.kr

광주문화재단(대표이사 김운기)은 오
래부터 문화재단 정관과 임원
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
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가 이뤄
질 예정이다.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11
일부터 15일까지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
접수하면 된다. 한편 제4기 이사진 임기
는 오는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26
일까지며 연임이 가능하다.
/박성천 기자 skypark@kwangju.co.kr

광주문화재단(대표이사 김운기)은 오
래부터 문화재단 정관과 임원
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
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가 이뤄
질 예정이다.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11
일부터 15일까지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
접수하면 된다. 한편 제4기 이사진 임기
는 오는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26
일까지며 연임이 가능하다.
/박성천 기자 skypark@kwangju.co.kr

광주문화재단(대표이사 김운기)은 오
래부터 문화재단 정관과 임원
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
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가 이뤄
질 예정이다.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11
일부터 15일까지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
접수하면 된다. 한편 제4기 이사진 임기
는 오는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26
일까지며 연임이 가능하다.
/박성천 기자 skypark@kwangju.co.kr

광주문화재단(대표이사 김운기)은 오
래부터 문화재단 정관과 임원
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
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가 이뤄
질 예정이다.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11
일부터 15일까지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
접수하면 된다. 한편 제4기 이사진 임기
는 오는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26
일까지며 연임이 가능하다.
/박성천 기자 skypark@kwangju.co.kr

작은만남 큰 기쁨!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개업·성업 안내

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.220-0551

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상품만들기 ☎ 010-3906-1718	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(나주신협옆)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☎010-2831-9257	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-36(구.계림시장동) 포장이사, 일반이사, 피자도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.신용.분위 ☎062)222-2424, 011-664-2202	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, 빌딩, 원룸, 투룸, 상가 임야, 토지 경매·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☎ 062)263-2223	고전방 동구 궁동 34-4 (중앙초등학교 후문) 도자기, 서양화,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☎062)224-4869	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-1 (중흥신협옆2층) 작명·사주·운세·궁합·택일 시험·승진·사업·재물·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☎010-9866-2332	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(용봉동) 현대하이사시 +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☎062)528-7711, 010-3612-9794
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-16 (궁동 54-2)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☎062)222-2516	박당화랑 동구 궁동 51-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,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☎062)222-6866	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, 액자, 족자,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☎062)222-3118	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☎062)222-1936	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-4번지(국민은행 건물내) 모든 메뉴 포장가능,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☎062)526-5475, 010-8621-5959	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(용봉동) 모든 부동산 사고 팔니다. 임야, 전답, 토지, 상가건물 재건축·재개발 매매·임대 ☎ 010-5707-6676	